美 "방위비 대폭증액" …외교부 "SMA 틀 내에서 협의"

韓美 협상 4차 종료 "주한미군 문제는 언급 없어"
이달 중 한국서 다음 회의 개최 추진…결과 주목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졌다. /연합뉴스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무리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 회의에 이어 이날 워싱턴DC 모처에서 이틀째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3차 회의가 미 협상팀 이석으로 파행한 뒤 2주 만에 재개됐다.

양측은 분담금 항목과 총액 등에서 치열한 협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회의 파행 후 한국에 "새로운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미국과 "이런저런 대안을 준비하고 왔다"는 한국 사이에 얼마나 간극 조율이 있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폭 증액을 압박 중이며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차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다음 회의를 이달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께 열리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현 규모로 계속 주둔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에 나섰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에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전날 협상장을 나서면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느냐는 물음을 받고 "안 나왔다. 주한미군 문제도 (협상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게임하며 홍콩 시위대에 분노 터뜨려"
중국서 '홍콩 반역자 사냥' 게임 등장

중국 본토의 온라인상에서 홍콩 시위와 관련된 중요 인물을 사냥하듯 찾아내 공격하는 게임이 등장했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모두가 반역자와 싸우자'는 이름의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홍콩 시위 군중 속에서 8명의 '반역자'를 찾아 이들을 때리거나 썩은 달걀을 던져 쓰러뜨린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하면서 홍콩 시위대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한 반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게임 커버에는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며 외부세력의 개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쓰여 있다.

8명의 '반역자'에는 반중국 성향 일간지 빈과일보를 소유한 지미 라이, 원로 야당인사 마틴 리, 홍콩 시위의 상징적 인물 가운데 하나인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됐으며 중국 고대 인물도 있다. 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도 있다.

/연합뉴스

"中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비단 확인"

5천여년 전 유물로 확인

중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5천여년 전 만들어진 비단 유물이 확인됐다고 글로벌타임스와 펑파이 등 중국매체가 5일 보도했다.

중국 허난성 정저우(鄭州) 문물고고연구원 구완파(顧萬發) 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허난성 싱양(滎陽) 왕거우(汪溝)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기존 중국 저장성 유적지에서 출토됐던 비단은 4천200-4천400년 전 것"이라면서 이번에 나온 유물은 지금으로부터 5천300-5천500년 전 것으로 시기적으로 1천 년 정도 앞선다고 밝혔다.

이 비단은 유적지에서 출토된 항아리 모양의 관 안에 담긴 어린이 유골을 감싸고 있었다.

학자들은 두개골에 붙어있던 물체와 관 아랫부분에 있던 토양 샘플에서 잔류물을 채취했고, 탄화(炭化)된 유물에 대한 복원작업 등을 거쳐 비단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유럽행 감비아 이주민 배 뒤집혀 최소 57명 사망

서아프리카 청년실업 탈출항로서 참담한 해난사고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를 떠나 유럽으로 가는 이주민을 실은 배가 4일(현지시간) 뒤집혀 최소 57명이 사망했다.

5일 A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서아프리카 모리타니 앞 대서양 바다에서 난민 150여명을 실은 배가 전복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라 룽가로티 IOM 사무총장은 감비아 출신 83명 이상이 침몰한 배에서 살아남았지만,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사파 음셀리 IOM 대변인은 생존자들의 말을 인용, 사고 선박은 앞서 감비아에서 150명가량을 태운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은 위험하지만, 한때 일자리와 번영을 좇아가는 이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된 항로였다.

스페인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순찰을 강화하면서 이주민 항해가 줄었으나 이번에 최악의 해난사고 가운데 하나가 불거지고 말았다. 감비아 등 서부 아프리카는 비록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급증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유럽행 이주민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 암 사망 위험 감소"

소화관 암 염증 억제 효과 때문

저용량 아스피린이 암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NCI)의 홀리 루먼스-크롭 박사 연구팀이 65세 이상 남녀 14만6천152명을 대상으로 평균 12.5(8.7-16.4년)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UPI 통신과 헬스데이 뉴스가 4일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암 사망 위험이 15%,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특히 체질량지수(BMI: body-mass index)가 25-29.9로 과체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용량 아스피린을 매주 3번 이상 복용한 경우는 위암 사망 위험이 28%, 대장암 사망 위험이 3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피린과 사망 위험 감소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스피린의 염증 억제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소화관 암(위·대장암)은 염증과 연관성이 큰 암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연구팀은 추측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英 방문 반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영국 런던에서 영국의 희극배우·영화감독·제작자인 찰리 채플린 분장을 한 남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